

사회

광주공항 소음 전국 최고

환경부 측정 87㏈… 광산구 송대·우산동 대화 불가능 수준

광주공항과 군산공항의 소음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광산구 송대동과 우산동, 군산시 옥서면 선연2리에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이 측정됐다.

사정이 이런 데도 최근 국방부가 광주 등 3개 지역을 제외하고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완화·개정하면서 광주시 광산구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공항 주변 104개 지점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광주공항의 소음도가 87㏈(WECPNL)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군산공항 86㏈(WECPNL), 청주·원주공항 85㏈(WECPNL), 대구공항 84㏈(WECPNL)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공항과 무안공항은 각각 66㏈

■ 광주·전남 공항별 평균 항공기 소음도
(단위 : WECPNL)

지역	광주	군산	여수	무안
소음도	87	86	66	63

㏈, 63㏈(WECPNL)로 소음도가 비교적 낮았으며, 국내 항공기 운항횟수의 39%를 차지하는 인천공항은 62㏈(WECPNL)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민간공항 소음 대책기준은 75㏈(WECPNL)이다.

광주시 광산구 송대동은 91.9㏈(WECPNL)로 전국에서 소음도가 가장 높았으며, 광산구 우산동(90.9㏈(WECPNL)), 군산시 옥서면 선연2리(88.9㏈(WECPNL))·옥봉리(88.5㏈(WECPNL)) 등은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측정됐다.

광주·군산공항은 민·군 겸용 공항의 특성상 전투기 소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공항에 비해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지조건상 상대적으로 주거지역과 공항이 가까운 것도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방부가 보상대책 기준을 개인주택 80㏈ 이상, 공공시설 75㏈ 이상으로 개정한 가운데, 광주와 대구, 수원은 기존 85㏈를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항공기�이·차류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따라 수준이 측정됐다.

광주·군산공항은 민·군 겸용 공항의 특성상 전투기 소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공항에 비해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지조건상 상대적으로 주거지역과 공항이 가까운 것도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방부가 보상대책 기준을 개인주택 80㏈ 이상, 공공시설 75㏈ 이상으로 개정한 가운데, 광주와 대구, 수원은 기존 85㏈를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올 여름방학 10일 정도 짧다

초·중·고 '주5일제' 여파

각 평균 42일, 43일이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평균 10일 정도 방학이 줄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오는 20일 전후로 방학을 시작해 8월 16일 이후에 개학한다. 초·중·고등학교의 방학 기간은 평균 26일로 개별학교 사정에 따라 방학 일수가 3~4일 정도 길어지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이 각각 평균 34일, 33일이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방학이 평균 7~8일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방학 기간이 줄어든 건 올 3월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제' 때문이다.

/윤영기자 penfoot@



비엔날레 자원봉사자 선발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13일 오전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면접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비엔날레 재단은 면접을 거쳐 통역, 행사 운영, 주차 등 5개 분야 100명을 선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경찰 '상습 酒暴' 103명 특별관리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酒暴)을 경찰이 특별관리한다.

광주경찰청은 15일 "상습 주폭 103명의 명단을 확보해 SMS 문자를 보내고, 분석지도를 만들어 예방활동을 펼치는 등 주폭에 대한 중점관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 관련 범죄 입건자 중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의 전과·경력, 죄질 등을 따져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관리 대상 주폭에게 절제된 음주 등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경찰은 중점관리대상자 중 폭력전과 8명 이상이 61명(59%)이었으며 폭력으로 인한 실형전과자도 38명(37%)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가 45명(4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에 대해 경찰은 지역 알코올치료센터와 업무협약을 하고 가정방문 상담과 교육도 지원한다.

광주경찰은 또 주폭 관련 신고를 분석·다발지역 33곳에 대한 지도를 작성, 이를 바탕으로 예방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112에 신고된 광주 지역 음주 연관 신고는 총 4484건. 장소별로는 광주시 북구 우암동 시민공원 주변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주변 173건 순이었다.

한편 광주북부경찰은 15일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이모(52)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원을 원한 이들이 37명(45.7%)이었고, 4등급 중 희망자는 128명(52%)으로 나타났다. 5등급 이하에서는 6회 모두 응시를 원하는 비율이 절반(123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364명(40%)은 횟수 제한이 미친 영향과 관련해 '무리한 응시를 피하고 전형을 신중하게 택하겠다'고 답했다. 또 올해 지원 전략을 묻는 항목에서는 571명(63%)이 '상향 또는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도 수시모집은 국내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 37만7958명 중 64.4%인 24만3223명을 뽑는다.

/연합뉴스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할인봉사 OFF SALE 30%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트레이너 대형 1,2종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아간반, 주말반 운영
- 교재무료 배부
- 셔틀버스 운행
- 2012년 7월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주| 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본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 062-951-5100